

기독교영화의 장르 연구

Genre studies of Christian films

강진구(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영화를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영화와 같은 대중예술을 통한 복음전파라는 문화의 도구적 활용에 일찍부터 눈을 뜨게 만들었고,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영화의 제작 배급 시스템 속에서도 기독교신앙을 앞세워 열약한 상황을 이기고 기독교영화는 꾸준히 제작되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양과 질의 면에서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20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영화는 한해에 한두 편 개봉되는 일이 쉽지 않을 만큼 기독교영화의 존재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신현원 감독의 <소명>과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 10만 명을 웃도는 관객 동원에 성공하며 한국 기독교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²⁾ 기독교영화가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교회에 큰 화제가 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영화에 비교한다면 기독교영화 10만 관객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소명>과 <회복> 모두가 다큐멘터리 영화란 사실이다. <소명> 이전의 기독교영화들은 모두 드라마로써 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독교영화의 흥행을 주도했다는 점은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수입영화가 아닌 한국에서 제작된 기독교영화의 경우 주된 장르가 드라마에서 다큐멘터리로 옮겨졌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2009년에서 2018년 4월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총 28편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상영 방식으로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선교와 관련된 영화는 18편에 이른다(강진구, 2017).

드라마의 경우 해외로부터 수입 배급된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4편에 불과했지만, 과거 1970년대 개봉된 할리우드의 대형 성서영화의 재개봉 사항을 포함한다면 약 5년에 걸쳐서 33편이나 되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모두를 포함하면 지난 5년간 극장에서 상영된 기독교영화는 총 61편에 이른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영화의 전성기로 불리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영된 모든 기독교영화 편수를 넘어서는 숫자로서 기독교영화가 종교영화의 범주를 넘어서 한국의 극장가에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영화를 장르로 분석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비슷한 영화들 끼리 묶을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영화는 일반 장르의 영화들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일은 없지만 한국의 영화사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만큼 지속적으로 제작과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의 내적인 측면을 분석해 볼 때 내러티브 구조나 연출의 형식, 주제의식 등에서 공통된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영화를 찾는 관객들의 존재

1) 한국 교회는 기독교 전래 초기부터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기초로 교회성장과 복음전파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당당한 선교국의 지위에 올라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세는 한국교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훈태, 278-297)

2)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연감에 따르면 <소명>은 97,529명, <회복>은 155,281명의 공식적인 입장객수를 기록하고 있다. <회복>은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한국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다.

가 분명이 있고 이들이 기독교영화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제작자가 이를 반영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장르영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장르(genre)는 일종의 영화 분류법으로 유사한 영화들을 묶어서 대중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쉽고 또한 제작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할리우드 대중영화의 제작방식으로 출발했다. 장르는 처음에는 문학에서 차용해 온 용어로서 일단의 내러티브 관습들(플롯, 등장인물 심지어 로케이션이나 세트 디자인까지 포함하는)이 오락 영화, 예를 들어 서부 영화나 뮤지컬에서 어떻게 다른 영화와 분명히 구별되는 형태로 조직되는 가를 알아보는 데 사용되어 왔다 (Turner, 61-62).

특히 장르영화는 사회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관객의 선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기독교영화는 사회현실에 대응하는 기독교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장르영화로서 기독교영화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기독교변증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독교영화의 장르적 접근을 통해 첫째, 기독교영화의 장르적 특징을 밝히고, 기독교영화가 현실사회 속의 관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외 기독교영화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통해 분석하려 한다.

II. 장르로서의 기독교영화에 대한 이해

장르는 할리우드가 영화사 초창기에 실행했던 스튜디오 시스템(Studio System)의 결과물이다. 스튜디오 시스템은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해 행하던 영화 제작의 일괄공정체계로부터 시작되었다. 특정 영화들에 대해서 관객의 호응도가 높은 것을 간파한 영화사들은 유사한 영화를 빠른 시간 안에 제작·개봉하기 위해서 감독이나 시나리오작가와 독점계약을 맺는 한편으로 전용 촬영 공간을 확보하여 영화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스튜디오 시스템은 미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루는 역할도 했지만 1948년 파라마운트 금지법(Paramount Case)으로 알려진 영화의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을 수직으로 통합시킨 독과점구조를 금지시키는 법에 따라 현재는 영화제작사가 극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화가 세계화되면서 관객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스튜디오 시스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스튜디오 시스템의 결과로 형성된 장르란 개념은 영화가 제작자 중심의 논리에 의해 전개되지 않고 관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장르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작가주의 영화'들이 한 감독의 여러 작품들 안에서 드러난 공통된 사항들과 특징들에 주목한다면, 장르 영화들은 관객이 선호하는 여러 영화들 사이에 나타난 유사점에 주목하여 영화의 특징적 요소들이 흥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는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흥행을 일으키는 공통된 특징에 주목하는 장르는 상업영화의 성공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지금까지 영화현장과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영화가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영화들 간의 상호 비교가 이루

어지기에 충분한 양의 제작 및 상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약 5년간에 걸쳐서 한국 극장에 개봉된 기독교영화는 총 61편이며, 이는 다른 종류의 영화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기독교영화'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영화에 대한 장르적 이해는 타종교 혹은 다른 장르와 구별하여 '기독교영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기독교영화는 '다양성 영화' 혹은 '종교영화'란 분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중이나 영화전문가들 모두는 분명 다른 영화와 구별되는 '기독교영화'만의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반영한 영화들이 제작 상영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영화는 곧 '성서 영화(Bible Cinema)로 인식되곤 하였다. 세실 B. 데밀(Cecil Blount DeMille) 감독의 대형 영화 <십계>(The Ten Commandments, 1923)와 <왕중왕>(The King of Kings, 1927) 그리고 <삼손과 데릴라>(Samson and Delilah, 1949)는 성서의 내용을 영화화함으로써 기독교 대중의 높은 인기를 얻은 것은 물론 기독교영화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개념을 관객의 머릿속에 심는데 결정적 역할을 미쳤다.

예를 들어 세실 데밀 감독은 흑백영화이면서 무성영화였던 1923년작 <십계>를 1956년 당시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이었던 비스타 비전(Vista Vision)으로 리메이크한 <십계>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모세이야기를 깊이 각인시켰다. 비스타 비전은 종래 화면보다 옆으로 길쭉해진 화면 비율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거대한 공간 연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세실 드 밀 감독의 <십계>의 출현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는 대중성과 흥행성 그리고 오락성을 지향하는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적어도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성서영화를 만들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을 제공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에 충실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일이었다. 관객들 또한 성서영화로부터 그들이 보아 온 성경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성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며 사실적으로 그려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성서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매달리기 보다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표현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국의 관객들은 기독교영화란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거나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는 영화여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생성될 수 있었다. 이는 '기독교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상관없이 대중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영화'는 어떤 것이며, 또한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기독교영화에 대한 일정한 형식을 보여주었다.³⁾

한국의 기독교영화는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성서영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미국에서 개봉된 주요 성서영화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상영되었고, 지금도 영화관에서 재상영이 되거나 성탄절 특집영화로 TV에서 방영이 되곤 한다. 성서영화는 고전영화로서 대접을 받으며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3) 기독교영화는 성경적 가치관에 충실하며 성서영화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이 한국의 기독교 대중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대에 와서 성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관객들로부터 과연 기독교영화라 부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영화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런 애로노프스키 감독의 <노아>(Noah, 2014)나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엑소더스:신들과 왕들>(Exodus: Gods and Kings, 2014)은 모두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이 만든 작품으로 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아울러 성경과 다른 내용도 함께 묘사하고 있는 바람에 기독교영화라는 장르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강진구, 「칼을 든 모세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5년 1월호.

관객의 호응을 받으며 유사한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것은 장르로서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을 뜻한다. 장르영화는 철저히 관객의 취향과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르영화가 이전의 유사한 영화들의 복사판처럼 똑 같다는 뜻은 아니다. 감독의 독특한 연출이나 사상 혹은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기독교영화 또한 장르로서 조금씩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가 변하고 영화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기독교영화를 찾는 관객들의 다양한 욕구들은 장르로서 기독교영화를 성서영화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하위 장르를 제작하도록 만들었다. 가톨릭교인들이 많은 유럽의 경우 성경뿐만 아니라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Francesco d'Assisi, 1966) 같은 교회사의 유명 인물을 조명한 위인전 스타일의 기독교 역사드라마를 제작하기 했고,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미국사회의 가족문화를 반영한 할리우드의 가족멜로드라마의 성장은 '기독교 가족영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III.기독교영화의 두 가지 형식-다큐멘터리와 드라마

한국의 기독교영화는 미국에서 수입된 장편 성서영화와 한국기독교역사의 인물이나 기독교인의 간증 형식의 드라마 위주로 기독교영화 장르가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영화는 장르상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기독교다큐멘터리영화의 등장이며, 둘째는 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영화가 성서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가정 그리고 학교 등 생활전반에 걸친 소재를 활용한 사회적이며 생활밀착형 드라마장르의 형식으로 개봉되고 있는 사실이다.

1.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장르

2014년부터 2017년 4월 현재 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총 18편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상영 방식으로 극장에 개봉되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선교와 관련된 영화는 7편에 이른다. 이 작품들은 모두 선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선교사역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표1>2014-2018년 4월 현재 기독교 다큐멘터리영화 극장상영작⁴⁾

상영년도	영화 제목(감독)	제작사	특기사항	누적 관객 (명)
2014	제자, 옥한흠(김상철)	파이오니아 21	사랑의교회 고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	50,392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권혁만)	KBS	손양원목사 일대기	42,245
	쿼바디스(김재환)	단유필름	한국대형교회비판	20,731
	*바세코의 아이들(김경식)	타이밍	신 승 철 선교사와 WMC 선교현장	3,150
	**그사람 추기경(전성우)	평화방송	김수환추기경일대기	13,537

4)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 <http://www.kmdb.or.kr> 2017년 7월 13일 접속.

2015	*순교(김상철)	파이오니아 21	해외파송선교사 최초로 순교한 김영학선교사 등	16,248
	싱 오버 미(제이콥 카인드버그)	문화선교연구원 수입	찬양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의 동성애로부터의 회복	1,808
2016	*순종(김동민·이주훈)	CBS	우간다 김은혜 선교사와 레반논 난민사역 김영화 선교사	58,634
	제자 옥한흠2:제자도(김상철)	파이오니아 21	권오중 출연	9,533
	드롭박스(브라이언 아이비)	킨드리드 이미지/미국공동제작	버려진 영아 돌봄 사역	2,233
	블랙가스펠2(김성곤·이임주)	스토리넷	소울 스승을 찾아 뉴욕에 간 양동근	1,353
	일사각오(권혁만·고무안)	KBS	주기철 목사 일대기	94,825
	**오 마이 파파/박혁지	(주)하이하버 픽처스	부산 소년의 집을 연소 알로이시오 신부	12,269
2017	*서서평:천천히 평온하게(홍주연·홍현정)	CGNTV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 하정우 나레이션	118,720
	*아이엠 호프맨(나현태)	5 2 D A Y S FILM	캄보디아 임만호선교사 사역	2,823
	광인 옥한흠(김상철)	파이오니아 21	고 옥한흠 목사의 목회 철학	2,985
2018	*바나나송의 기적(송우영·지혜원)	바른미디어	성악가 김재창이 인도에서 만든 선교합창단	9,297
	*파파 오랑후탄(이성관)	시네마미션	말레이시아의 박철현 선교사의 오지 사역	1,657

*표시는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로 분류되는 작품을 뜻한다.

**표시는 가톨릭에서 제작/수입된 작품이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독교영화 장르를 대표하며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교회내부의 인식의 변화 및 교회를 둘러싼 일반 영화계에 나타난 다큐멘터리 열풍 등 두 가지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강진구 2017, 23).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바로 자연의 원시성이 살아있거나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간다운 삶이 상실되는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참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비춰준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선교의 소명을 일깨우는 한편으로, 세상 밖으로는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표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교회 밖의 영화 환경도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 2009년 이충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293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2014년 개봉작인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⁵⁾는 무려 48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

하여 다큐멘터리 영화도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게 대중적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상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드라마 장르에 비해 사실성에 충실한 다큐멘터리 장르는 연기나 기술로 눈속임을 하지 않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웰빙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사회적 상황에 잘 맞아 떨어졌었다.

기독교영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교중심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적은 제작비를 가지고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실천되는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관객을 끌어들인데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교회의 의도와 대중적 선호도가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서 기독교영화의 뚜렷한 장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2. 기독교 드라마 영화 장르

기독교영화 가운데 드라마 장르는 국내 제작 보다는 해외로부터 수입된 영화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수입된 기독교영화들의 면모를 보면 과거 할리우드의 성서영화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족드라마나 세속적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정당성을 지키려는 기독교변증 형식의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2014년-2018년 4월 현재 극장 개봉 기독교 극영화

상영년도	영화제목(감독)	제작사/수입사	제작국가	누적관객 ⁶⁾
2018	막달라 마리아:부활의 증인(가스 데이비스)	UPI코리아	영국	30,402
	삼손(브루스 맥도널드)	(주)풍경소리	미국	1,389
	*원죄(문신구)	엠에스케이컨텐츠	한국	228
2017	예수는 역사다(존 건)	(재)CBS	미국	172,971
	사일런스(마틴 스콜세지)	씨네그루	미국	94,750
	오두막(스튜어트 하젤딘)	판시네마	미국	75,657
	산상수훈(유영의)	(주)그란	한국	39,196
	루터(에릭 틸)	THE 픽처스	독일	29,685
	위대한 탄생(캐서린 하드윅)/재개봉	가나미디어	미국	63,332
	십계:구원의 길(알렉상드르 아반치니)	씨네그루	브라질	15,974

5) <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016년 12월 6일 현재 4,801,873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다양성영화 부문 1위, 한국영화역대흥행순위 87위에 올라있다. <http://www.kmdb.or.kr>. 2017년 7월 13일 접속.

	위대한 임무(피터 스펜서)	(재)CBS	미국	7,502
	*성프란치스코(르노 페리)	찬란	프랑스	4,823
	로마서8:37(신연식)	(주)루스이소니도스	한국	3,275
	광야의 40일(로드리고 가르시아)	THE 픽처스	미국	602
	*미라클(장 사골)	(주)코리아스크린	프랑스	8
	미션(롤랑 조페)/재개봉		영국	33,444
2016	레터스 투 갓(데이비드 닉슨)	(주)모멘텀엔터테인먼트	미국	65,250
	미라클 프롬 헤븐(패트리시아 리건)	UPI코리아	미국	17,665
	벤허(티무르 베크맘베토프)	(주)롯데엔터테인먼트	미국	1,400,397
	부활(케빈 레이놀즈)	UPI코리아	미국	176,539
	신을 믿습니까(조나단 M. 건)		미국	7,529
	실버벨(해롤드 크렁크)	(재)CBS	미국	2,935
	다윗과 골리앗(윌리스 브라더스)	(주)풍경소리	미국	38
	신은 죽지 않았다2(해롤드 크렁크)	(주)에스와이코마드	미국	38,428
	*프란체스코(베다 도캠포 페이지 주)	(주)머스트씨릴리징 컴패티	스페인	18,802
2015	프리덤(피터 쿠센스)	(재)CBS	미국	106,483
	신은 죽지 않았다(해롤드 크렁크)	(주)에스와이코마드	미국	38,379
2014	시선(이장호)	크로스픽처스	한국	12,950
	선 오브 갓(크리스토퍼 스펜서)	(주)수키픽처스	미국	329,286
	불의 전차(휴 허드슨)	(주)에이앤비픽처스	영국	58,197
	십계(세실 B. 데밀)/재상영	불이무역	미국	12,515
	삼손과 데릴라(세실 B. 데밀)/재상영	(주)연방영화	미국	10,382
	벤허(윌리엄 와일러)/재상영	피터팬 픽처스	미국	17,193

미션(롤랑 조페)/재상영	피터팬 픽처스	영국	25,763
퀴바디스(머빈 르로이)/재상영	남화	미국	11,299
바라바(리차드 플레이어)/재상영		이탈리아	2,959
성의(헨리 코스터)/재상영	(주)이십세기폭스코 리아	미국	3,629

*표시는 가톨릭에서 제작/수입된 작품이다.

장르로서의 기독교영화는 거듭 제작되면서 사회의 변화나 기독교관객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장르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독교영화는 앞의 두 영화목록이 제시하듯이 형식상 크게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라는 두 하위 장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는 내용상 선교다큐멘터리와 역사다큐멘터리 또는 인물다큐멘터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일사각오>나 조선최초의 간호협회를 세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묘사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기독교 역사다큐멘터리 영화로 규정될 수 있으며, <드롭 박스>는 현대의 시점에서 버려진 영아를 돌보는 목회자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까닭에 역사다큐멘터리 보다는 인물다큐멘터리 쪽에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다.

드라마의 경우는 기독교영화의 하위 장르를 구분하는 일이 다큐멘터리에 비해서 보다 복잡하다. 배경에 따라서 기독교 가족영화나 학원영화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독교역사나 인물을 다룬 영화로도 쉽게 분류가 가능하다. <실버벨>의 경우 성탄절기의 특성을 가진 ‘크리스마스 영화’라는 장르적 구분도 가능하다. 영화 <루터>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위대한 임무>는 나치 치하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여사와 같은 기독교역사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에서 역사드라마로 분류하는 일 또한 가능하다. <프리덤>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이자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 목사의 신앙을 묘사하고 있는 점 역시 기독교 역사 장르나 기독교인물 장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장르는 고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합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기독교영화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영화의 경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기독교 역사다큐멘터리인 동시에 선교사의 행적을 다룬 선교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김상철 감독의 <순교> 또한 한국최초의 해외선교사로 파송되어 1932년 시베리아에서 순교한 김영학 목사와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랍되어 순교한 배형규 목사 그리고 심성민 성도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다큐멘터리 영화이기도 하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안에서 선교와 역사라는 두 가지 장르가 결합될 경우 ‘기독교 선교역사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디오로만 출시되었다가 뒤늦게 극장에서 개봉을 한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 1981)는 기독교인물 장르와 스포츠장르가 혼합(hybrid)된 장르 영화이기도 하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 육상대표선수로 출전한 에릭 리

6) 누적관객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은 대한민국 영화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이후부터 전국 극장의 99% 이상이 등록되었다.(www.kobis.or.kr)

들(Eric Liddle)이 주일성수를 해야 한다는 신념 속에 주일에 예정된 100m 경기를 포기 하는 대신 주중에 열린 400m에 출전 우승을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스포츠영화인 동시에 기독교 선교사의 중요한 인물을 다룬 영화이기도 하다.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선수이면서 동시에 중국선교사이기도 했다는 점은 스포츠 영웅을 좋아하는 관객들과 모범적인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보고 싶은 기독교인 관객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영화 장르의 첫 걸음을 장식한 성서영화 또한 현대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고, 누구나 성서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함고 동시에 과거와는 다른 내용의 변화 역시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성서영화라는 장르가 관객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선 오브 갓>(Son of God, 2014)은 미국 히스토리채널에서 2013년 3월부터 방영한 10시간짜리 드라마 <더 바이블>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하여 상영시간 138분의 극장용으로 개봉한 작품이다. 성경에 언급된 예수의 언행을 가장 충실하게 옮겼다는 평가를 받은 프랑코 제퍼렐리 감독의 <나사렛 예수>(1977)의 상영시간이 무려 371분이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인 영화란 점은 이 영화의 큰 장점이기도 했다.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부활>(Risen, 2016)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로마군의 호민관이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사라진 예수의 시신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선 오브 갓>이나 <부활> 그리고 리메이크된 <벤허> 등은 고전 성서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르적 특징인 '서사영화(epic film)'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여 규모의 미학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성서영화의 전통적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로마 군인의 시각을 따라 영화가 진행되는 점은 장르가 내적으로 얼마든지 변화하면서 관객의 인기를 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성서영화장르가 여전히 관객을 모으고 있는 이유를 거대한 화면과 스펙터클한 장면 그리고 장르영화에 대한 관객의 기대감을 유지시키면서도 영화 내부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제작진들의 창의력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서영화가 할리우드의 주요 장르로서 자리를 잡았던 시절에 마음을 빼앗겼던 중장년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의미가 있다.

CGV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7년 5.3%에 불과했던 중장년층 비중이 2010년에는 10.1%를 넘고, 2016년에는 20.3%를 차지하게 되면서 핵심 관객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⁷⁾ 지금까지 영화관객은 20·30대가 중심축을 이루어왔고 중장년층은 영화소비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왔으나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중장년층은 영화관람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일 낮과 주말 오전 시간대에 몰렸지만 1회 평균 영화관람권 구매수도 젊은 연령층을 능가했다. 2016년도의 경우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영화 TOP5에는 <벤허>가 들어있었다. CGV 리서치센터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서양의 대작선호도가 높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장르적으로 접근하자면 한국의 중장년층에게는 스펙터클한 영상을 지닌 성서영화들은 앞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7) 「극장가, 중장년층 관객 증가 눈길..CGV 리서치센터 "시장 주도"」, e news24, 2017sus 2월 8일자, <http://enews24.tving.com/news/article.asp?nsID=1161654>, 2018년 5월 1일 검색. 2016년 기준으로 중장년층은 1회 평균 2.16장을 예매한 반면, 그 이하 연령층은 1회 평균 2.01장을 구매한다. 방문횟수와 1회 평균 발권수가 높다 보니 VIP 비중으로서도 중장년층의 입지가 탄탄해졌다.

IV. 기독교드라마 장르의 내러티브 구조

장르는 반복되는 관행을 가진 일련을 영화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비슷한 내용이나 유사한 줄거리의 전개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게 된다. 주인공의 직업이나 캐릭터, 혹은 소재나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른 여러 영화들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장르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구조에 있어서 반복되는 경향이야말로 장르 영화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은 영화 안에서 노출되는 예배나 기도, 교회와 십자가의 등장, 가족의 식사 가운데서 언급되는 기도문 등과 같은 사물과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도 특징지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조 속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장르 텍스트의 기본 구조인 ‘반복’과 ‘변형’이 기독교영화 장르 안에서도 발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영화화 한 ‘성서영화’를 제외한 현대의 기독교 드라마는 아래와 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①평범한 기독교인의 등장
- ②행복한 일상적 삶의 전개
- ③개인 또는 가족에게 찾아 온 위기
- ④위기에 위협당하는 신앙
- ⑤주변의 왜곡된 시선과 고난의 경험
- ⑥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 ⑦주변 조력자의 등장
- ⑧기적의 발생 또는 하나님의 간섭
- ⑨위기의 소멸
- ⑩주인공의 신앙 회복
- ⑪주변인과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
- ⑫일상적이며 행복한 삶으로의 복귀

2016년도 한국에서도 수입 개봉된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Miracles from Heaven, 2016)은 전형적인 미국식 가족드라마로서 기독교영화의 장르적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①미국 텍사스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남편 그리고 세 딸과 함께 살아가는 주부 크리스티는 평범한 신앙인이다. ②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는 모험을 해도 날마다 가족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③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 애나가 원인불명의 병에 걸리면서 애나와 크리스티 그리고 온 가족은 고통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④하나님께서 애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크리스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⑤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애나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삼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다. ⑥크리스티와 가족들은 애나의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⑦크리스티는 애나를 데리고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않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항공사 직원과 레스토랑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도움을 받는다. ⑧어느 날 집 앞 마당에 있는 고

목나무 위에서 옛 추억을 되살리며 놀던 중 애나는 그만 나무 속 10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애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⑨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메시지를 들은 애나는 그 후로 병이 낫고 의학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는다. ⑩크리스티와 가족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도중 간증을 하며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⑪애나가 경험한 치유 기적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방송기자에게 보스턴의 병원에서 애나 옆 침대에 있다가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신문사 기자임을 밝히고 애나의 간증이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과거 무신론자였음을 밝힌다. ⑫애나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의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기독교 드라마 장르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할리우드의 일반 가족드라마나 휴머니즘 드라마와는 다르다. 주인공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고통의 상황은 여느 영화 속 주인공이 경험하는 것과 같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식에 있어서 기독교 드라마 장르는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 신앙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신앙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아울러 신앙의 힘을 통해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신앙의 승리와 같은 독특한 문제해결 방식이 드러나 있다. 기독교영화에 등장하는 ‘기적’은 기독교인 관객들이 매우 선호하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세속의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정점에 다다를 때 주로 사용된다. 또한 신앙에 충실하거나 성경적인 삶을 살 때 일어나는 행복한 결과 또한 기독교인 관객이 기대하는 기독교 영화의 장르적 특징이기도 하다.

셋째는 해피 엔딩의 명확한 결말 구조를 갖는 일이다. 충실한 신앙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문제 있는 삶을 원래의 행복한 자리로 돌려 놓는다. 그것은 관객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끝맺음이며, 현대 영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열린 결말 형식으로 관객에게 숙제와 고민을 제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마치 디즈니의 가족영화 가운데 불행한 결말이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속 시원하게 극장문을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행복한 결말이야말로 기독교 장르 영화에서 반복되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V. 기독교장르 영화의 두 가지 기능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신화 혹은 설화의 양식이 현대 영화 속의 영웅이야기와 어떤 유사성을 갖는지를 밝히고 현대영화의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유명하다.⁸⁾ 이것은 장르영화 가운데는 내러티브 구조의 유사성이 이미 종교나 신화의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르의 내러티브적 특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는 장르가 관객의 기대나 욕망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으며,⁹⁾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익숙한 이야기에 대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그의 책 『신화의 힘』에서 이 시대의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루카스의 영화 <스타 워즈>시리즈를 전통적인 영웅 신화와 그 본질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이 영화의 젊은 영웅은 고도의 과학 기술이 발달한 문명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대의 영웅들이 겪었던 것과 똑 같은 악의 화신, 시련, 경이와 맞선다고 보았다. 또한 캠벨은 영화만이 가지는 스토리텔링 조건들을 적용시켜서 ‘영웅의 여정’을 영웅이 겪는 모험과정에 따라 열두 장면으로 나누었다. (Campbell, Joseph and Moyers, Bill(1991), 10-12)

9) 장르영화들이 갖는 의미를 신화나 제의와 연결시켜서 사회 집단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들은 오래전부터 전개되어왔다. 영화 장르 이론에서 신화가 지칭하는 것은 장르가 공유된 문화적 가치들과 관심사들을 상징적 서사로 그려냄으로써 그것들을 시연하고 작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Langford, Barry(2009, 40-41).

관객들은 전혀 전에 접하지 못했던 낯선 영화를 보기 보다는 이전에 공감하고 친숙한 영화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아울러 영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갖고 보는 것이 장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관객들은 영화의 다음 장면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장르 영화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욕구를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장르의 변화적 속성을 간파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장르영화는 반복과 변형의 변증법 가운데서 발전해왔음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장르영화는 사회와의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작용해 왔다. 즉 장르영화는 영화를 고정된 물체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살아 움직이며 반응하는 생물처럼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

장르영화가 지닌 사회와의 역동적 관계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기능을 통해 드러난다. 첫째는 영화를 생산해 낸 사회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오히려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연구의 권위자인 토마스 샷츠(Thomas Schatz)는 장르 영화들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관객에게 현 사회 질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체제유지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재난영화라는 장르를 선호하는 미국 대중들의 심리란 오락적 관점에서 보자면 특수효과를 입힌 영상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극장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데에는 재난영화 만한 것이 없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모습에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스터리 범죄물 작가이기도 한 스텐트 카민스키는 장르영화들은 새로운 태도와 사고의 방향으로 관객을 이끌 수 있는 혁명적인 영화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장르영화들은 분명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사회변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Kaminsky, 1977).

이것은 토마스 샷츠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장르의 가장 핵심은 ‘반복과 변형’에 있다. 대중이 좋아하는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꼭 같은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장르는 복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움을 입히는 창조적인 작업 끝에 탄생한 영화다.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데서 오는 묘미가 있어야 관객은 장르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 때 약간 변형시키는 장르의 매력은 뜻밖에도 사회질서와 문화에 익숙한 관객의 생각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 신앙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기독교 장르 영화

기독교 장르영화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현실을 드러내며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신앙의 의미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납득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 장르 영화를 찾는 관객들은 기독교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복돋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다큐멘터리 장르는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가치를 옹호하며 관객에게 선교

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행적은 기독교신앙인들을 감동시키며 더 나아가서 선교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불의 전차>에서 에릭 리들이 보여준 주일 성수의 행동은 결국 주일 성수에 대한 교회의 가치를 강화시킨다. <예수는 역사다>는 무신론 기자가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써 주인공이 결국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결말은 현실 속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확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장르로서 기독교영화에는 기독교 신앙인이 믿고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은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장르 영화

장르영화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고 체제질서를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회변혁을 유도하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장르 영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영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유사성을 가진 다수의 영화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다수의 비슷한 영화들이 상업적인 시스템 안에서 상영된다는 사실은 관객 혹은 사회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르로서 기독교영화는 변화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이나 기독교를 향한 교회 밖의 시선에 대한 변증이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 장르 영화들이 반복을 통한 관습의 재생산만을 의미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한다는 사실은 영화 밖의 현실에 대해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독교 영화에서 최근 뚜렷하게 나타난 장르적 특징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경고하고 이를 신앙의 본질 안에서 성찰하려는 영화들의 이어진 상영이다.

김재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퀴바디스>(2014)와 김상철 감독의 연작 <제자 옥한흠>(2014)과 <광인 옥한흠>(2017)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한국교회를 향한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내부의 소리를 영상에 담았다. <제자 옥한흠>은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25년간 담임목사로 활동하다 2010년 소천한 옥한흠 목사의 삶과 사역을 조명한 영화였다. 옥한흠 목사의 가장 열정적인 삶이 제자훈련과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가 어떻게 세속적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에 헌신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관객들은 옥한흠 목사의 생전의 설교를 통해 교회갱신의 메시지를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보여준 영화는 <퀴바디스>였다. 다큐멘터리 <퀴바디스>는 멀빈 르로이 감독의 1951년작 <퀴바디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영화다.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카 주연의 <퀴바디스>가 로마시대 네로 황제의 광적인 핍박 속에서도 순교적인 삶을 살며 신앙을 지킨 기독교인의 모습을 감동있게 보여주었다면, 김재환 감독의 <퀴바디스>는 예수가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현재 한국의 대형교회들의 민망한 현실을 추적하고 있다. <퀴바디스>는 현대 한국의 대형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엮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성경적 삶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려는 커녕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만 한국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신연식 감독의 <로마서8:37>(2017)은 드라마 장르로서는 보기 드물게 목회자의 성추문 사건을 소재로 다루었다. 교회내부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추문 사건이 어떻게 가려지고 왜곡되는

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점은 이전에 어떤 기독교영화도 다루지 않은 새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연출방식은 선정적인 공표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신앙을 통한 회개와 성찰에 방점을 찍은 까닭에 일반영화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장르영화의 변화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 외부의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롤드 크롱크 감독의 <신은 죽지 않았다>(God is not dead, 2014)와 <신은 죽지 않았다 2>(2016)는 교회의 신앙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현대 미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기독교신앙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기독교변증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영화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반기독교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동시에 이를 기독교적 신앙관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이 영화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은 죽지 않았다>는 미국 대학에서 일반화된 무신론교육 현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학생의 모습을 그렸다. 철학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쓸 것을 지시한 교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가는 주인공 대학생의 모습은 단순히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무신론이 지배하는 미국의 대학풍경과 세속화된 학문에 대한 미국 기독교인의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신은 죽지 않았다2>는 기독교신앙이 위협당하는 공교육 현장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했다.¹⁰⁾ 기독교인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단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란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논란과 기독교강요라는 부당한 사회현실을 기독교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대응하는 매우 현실감 있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을 다룬 기독교영화의 등장은 장르로서 기독교영화에 대한 관객의 새로운 그러나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한 일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미국 사회의 탈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상황에 대해 불만을 넘어서서 위기감까지 느끼는 미국의 기독교인의 마음을 영화는 보여주었고 결말에 나타난 신앙의 승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¹¹⁾

이것은 장르로서의 기독교영화가 관객을 포함한 현실세계와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장르는 고정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영화 장르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총수는 1,621편에 달하며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회수는 4.25회로 세계 1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영화의 나라라 할 수 있다. 영화가 한국의 대중문화의 꽃으로 자리 잡은 현실은 기독교영화에

10) 미국의 경우 창조론에 대한 배경으로 시작된 공교육현장의 탈기독교적이며 반기독교적 행동은 지난 1963년 케네디대통령의 종교자유법을 개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공적인 조직이나 단체, 학교 등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전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케네디는 연방 대법원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기독교는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모임은 물론 기도조차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10월, 미국 워싱턴주의 브레머튼 고교와 세인트랄리아 고교의 풋볼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의 선수와 학부모들이 경기장 중앙에서 기도를 한 일이 미국 전역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것은 기도를 금지한 정부의 법안과 미국 기독교인의 신앙과의 갈등의 지 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일이었다.

11) <신은 죽지 않았다>의 경우 미국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국 개봉 당시 할리우드 박스 피스 10위권 안에 4주 연속 입성했다는 사실이나 약 2백만 달러 남짓 든 적은 제작비로 30배가 넘는 6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결과는 일반적인 기독교영화의 제작 풍토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서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기독교다큐멘터리의 전성시대를 가져왔고, 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영화도 지속적으로 상영되는가 하면, 심지어 1960년대 까지 기독교영화를 대표했던 고전 성서영화까지도 재개봉되는 등 기독교영화는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영화가 보기 드문 특정 작가의 희귀영화의 성격에서 대중의 선호도가 반영된 장르영화로서 변모한 것은 제작과 수입 그리고 상영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영화는 표현양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영화와 구분되는 신앙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영화들 사이에서는 일련의 공통된 점을 보여줌으로써 장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관객의 기대와 예상에 부응함으로써 기독교영화 장르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기독교영화의 장르화는 관객의 기호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드라마 일색에서 다큐멘터리로 분화되었고, 선교와 역사 그리고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또한 혼합하면서 기독교다큐멘터리의 하부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기독교 드라마의 경우는 한국에서 직접 제작된 것 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된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수입 기독교영화의 경우 가족을 배경으로 일정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독교 드라마의 내용을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모두 기독교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갖는 한 두 가지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장르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익숙함과 친밀함을 가지고 관객의 호응을 얻는 까닭에 기독교영화를 보면 볼수록 기독교신앙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기독교영화 제작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제작자의 경우 장르로서 기독교영화에 거는 기대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영화관 안에서도 확인시키는 일이다.

드러나 장르는 결코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만은 않는다. 일정한 관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통해 창의성과 새로움을 선사한다. 이것은 장르가 관객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까닭이다. 장르는 관습과 체제를 정당화하며 강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새롭게 변혁을 추구하며 관객을 설득하는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한국영화에 새롭게 등장한 교회개혁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나 미국의 경우 교회의 위협을 행사하는 무신론적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증하려는 기독교영화가 계속 제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르가 지닌 개혁적 기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밝힌 기독교영화 장르의 이해 측면에서 빠져있으면서 가장 실천적으로 중요한 한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영화의 지속적인 소비를 위한 방안을 간구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까지 오른 <신은 죽지 않았다>의 경우 한국에서는 개봉 첫 날 전국 68개의 상영관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취급을 받는 기독교영화로써는 비교적 적지 않은 극장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 상영은 없었고 1회 3회 5회 등 이른바 건너뛰기 식 상영을 하거나 하루에 한 번 상영하는 극장이 태반이었다. 심지어 노원구에 있는 한 멀티플렉스 극장은 주일 아침 8시 20분 한 회 상영만을 예정해놓고 있을 뿐이었다. <신은 죽지 않았다>가 '기독교인을 위한 영화'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주일 오전 이른 시간에 상영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일 오전은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기독교인으로

서는 가장 바쁜 신앙생활 시간대에 영화를 보러 오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오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화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과 문화를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은 경제적 구조와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있으며, 상품을 제작 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이 소비하지 않는 기독교영화는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까닭에 기독교영화의 장르화 또한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2004년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자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사'는 기독교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자회사 '폭스페이스(Fox Faith)'를 만들기도 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영화의 장르연구는 기독교영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

참고문헌

- 강진구, “한국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현황과 문화선교적 역할 연구”, 「복음과 선교」제39집, 서울:2017
- 장훈태(2012),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서울: 도서출판 대서, 278-297
- 정영권(2017), 『영화 장르의 이해』, 서울:아모르문디
- Campbell, Joseph and Moyers, Bill(1991), *The Power of Myth*, New York: Anchor
- Clive Marsh and Gaye Ortiz(1997), *Exploration in Theology and Film: An Introduction* 김도훈 역(2007),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영성』, 서울: 살림
- Johnston, Robert K.(2000),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2003), 『영화와 영성』, 서울:IVP
- Kaminsky, Stuart M(1977), *American film genres Approaches to a critical theory of popular film*, New York: Dell Pub. Co
- Langford, Barry(2005), *Film Genre: Hollywood and Beyond*, 방혜진 역(2010), 『영화 장르: 할리우드와 그 너머』, 서울:한나래
- Moine, Raphaelle(2005), *Les genres du cinema*, 유민희 역(2009), 『영화 장르』, 서울:동문선
- Nowell, Geoffrey edt.(1996),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이순호 외 옮김 (2008), 『옥스퍼드 세계영화사』, 파주:열린책들
- Schatz, Thomas(1981), *Hollywood Genres*, 한창호·허문영 역(1995),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서울:한나래
- Tatum, W. Barnes(1997), *Jesus at the Movies*, 승현민 외 옮김(2004), 『예수영화 100년』, 서울:백림
- Turner, Graeme(1993), *Film as a Social Practice*, 임재철 외 옮김(2013), 『대중 영화의 이해』, 서울:한나래
- Voytilla, Stuart(1999), *Myth & the Movies: Discovering the Myth Structure of 50 Unforgettable Films*, 김경식역(2005), 『영화와 신화』, 서울:을유문화사

(요약) 기독교영화의 장르 연구

Genre studies of Christian films

강진구(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총수는 1,621편에 달하며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회수는 4.25회로 세계 1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영화의 나라라 할 수 있다. 영화가 한국의 대중문화의 꽃으로 자리 잡은 현실은 기독교영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서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기독교다큐멘터리의 전성시대를 가져왔고, 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영화도 지속적으로 상영되는가 하면, 심지어 1960년대 까지 기독교영화를 대표했던 고전 성서영화까지도 재개봉되는 등 기독교영화는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서 2018년 4월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총 28편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상영 방식으로 극장에 개봉되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선교와 관련된 영화는 18편에 이른다. 국내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4편에 불과했지만, 과거 1970년대 개봉된 할리우드의 대형 성서영화의 재개봉 사항을 포함한다면 약 5년에 걸쳐서 33편이나 되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모두를 포함하면 지난 5년간 극장에서 상영된 기독교영화는 총 61편에 이른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영화의 전성기로 불리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영된 모든 기독교영화 편수를 넘어서는 숫자로서 기독교영화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장르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기독교영화는 표현양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영화와 구분되는 신앙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영화들 사이에서는 일련의 공통된 점을 보여줌으로써 장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관객의 기대와 예상에 부응함으로써 기독교영화 장르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기독교영화의 장르화는 관객의 기호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드라마 일색에서 다큐멘터리로 분화되었고, 선교와 역사 그리고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또한 혼합하면서 기독교다큐멘터리의 하부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기독교 드라마의 경우는 한국에서 직접 제작된 것 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된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수입 기독교영화의 경우 가족을 배경으로 일정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독교 드라마의 내용을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모두 기독교영화의 장르적 특성은 두 가지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장르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익숙함과 친밀함을 가지고 관객의 호응을 얻는 까닭에 기독교영화를 보면 볼수록 기독교신앙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기독교영화 제작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제작자의 경우 장르로서 기독교영화에 거는 기대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영화관 안에서도 확인시키는 일이다.

드러나 장르는 결코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만은 않는다. 일정한 관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통해 창의성과 새로움을 선사한다. 이것은 장르가 관객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까닭이다. 장르는 관습과 체제를 정당화하며 강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또 한

편으로 새롭게 변혁을 추구하며 관객을 설득하는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한국영화에 새롭게 등장한 교회개혁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나 미국의 경우 교회의 위협을 행사하는 무신론적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증하려는 기독교영화가 계속 제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르가 지닌 개혁적 기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밝힌 기독교영화의 장르적 이해 측면에서 빠져있으면서 가장 실천적으로 중요한 한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영화의 지속적인 소비를 위한 방안을 간구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까지 오른 <신은 죽지 않았다>의 경우 한국에서는 개봉 첫 날 전국 68개의 상영관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취급을 받는 기독교영화로서는 비교적 적지 않은 극장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 상영은 없었고 1회 3회 5회 등 이른바 건너뛰기 식 상영을 하거나 하루에 한 번 상영하는 극장이 태반이었다. 심지어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은 주일 아침 8시 20분 한 회 상영만을 예정해놓고 있을 뿐이었다. <신은 죽지 않았다>가 '기독교인을 위한 영화'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주일 오전 이른 시간에 상영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일 오전은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바쁜 신앙생활 시간대에 영화를 보러 오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오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화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과 문화를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은 경제적 구조와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있으며, 상품을 제작 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 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이 소비하지 않는 기독교영화는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까닭에 기독교영화의 장르화 또한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2004년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자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사'는 기독교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자회사 '폭스 페이스(Fox Faith)'를 만들기도 했다. 장르영화야 말로 소비가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영화의 장르연구는 기독교영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